

성인자녀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구적 지원 관련 요인

: 지원에 관한 태도 및 지원 제공을 중심으로

Factors Associated with Instrumental Support to Adult Children

: Attitudes Toward Support and Actual Provision of Support

최여진(Yeo Jean Choi), 이재림(Jaerim Lee)*

Departmen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instrumental support (i.e., economic and practical support) from parents to their adult children. We examined both parents' attitudes toward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and parents' actual provision of instrumental support. From the data of the 2010 second National Survey of Korean Families, we selected 532 mothers and 524 fathers who were married and had at least one adult child aged over 25.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by the parents' gender showed that fathers were more likely to agree with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in general when they had unmarried children, had a lower household income level, had a lower evaluation of their socio-economic class, were satisfied with their own household economic situation,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 caregiving for elderly parents, and were satisfied with their couple relationships. For mothers, they were more likely to agree with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in general when they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 caregiving for elderly pare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couple relationships, and perceived their child as someone to rely on in times of difficulties. Our analyses of the actual provision of support indicated that fathers tended to provide more support when they perceived that they were healthy, had unmarried children, were less satisfied with their household economic situation, had negative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and reported a higher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For mothers, they were more likely to provide actual support when they were healthy, had unmarried children, had a higher level of household income, were financially preparing for later life, and less satisfied with their couple relationship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it is imperative to distinguish the attitudes toward support from the actual provision of support and to also consider parents' gender in the literature on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주제어(Key Words) : 부모의 도구적 지원(parental instrumental support),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 for instrumental support)

• 본 논문은 2014년 대한가정학회 및 한국가정관리학회 주최 통합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Jaerim Lee, Departmen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ro-gu, Seoul 110-745, Republic of Korea, Tel: +82-2-760-0519, E-mail: jaerimlee@skku.edu

I. 서론

성인이 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가 경제적 지원이나 서비스 지원 등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부모가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수준이 과도해져서 ‘캥거루족’, ‘연어족’ 등 부모의 도구적 지원에 의존하는 성인자녀를 일컫는 용어나 ‘헬리콥터 부모’ 등 성인자녀에게 과도한 도구적 지원을 하는 부모를 일컫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과거 한국 가족에서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도구적 지원이 성인자녀로부터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 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대조되는 양상이다. 이는 부모로부터 독립이 요구되는 성인기에 대학 등록금, 결혼준비 비용 등 성인자녀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가 있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사노동이나 어린 자녀 돌봄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M. Buchmann & I. Kriesi, 2011; J. Lee, 2013).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부모들이 성인이 된 자녀에게 다양한 형태의 도구적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인자녀를 도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부모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를 분석한 S. Kim(2014)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혼인할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기혼 남성의 43.5%, 기혼 여성의 40.1%로 이례적으로 높다고 지적하였다. 손자녀 양육지원의 동기를 분석한 J. Lee and J. Bauer(2013)는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이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조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게 된 중요한 동기였다고 하였다. 이는 많은 부모들이 성인의 독립과 자립을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을 인지하고 있지만 자녀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고려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을 점점 인정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Y. Lee, 2011). 부모가 성인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는 부모의 심리적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설문에 따르면 50대 다섯 명 중 세 명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들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자녀의 교육, 취업, 결혼비용 등 ‘자녀 뒷바라지’였다(J. Kim, 2012). 이렇게 현재 부모세대가 자녀의 뒷바라지로 인해 삶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는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이 부모세대의 노후 준비나 심리적 안녕감과 연관이 있으며, 나아가 가족 및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인자녀를 도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

모가 많고 성인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는, 성인자녀에 대한 실제 도구적 지원과 함께 성인자녀 지원에 대해 부모가 갖고 있는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부모의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태도적, 가족관계적 특성이 성인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성인자녀 지원 관련 태도가 형성되는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부모가 실제로 도구적 지원을 하는지와 함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부모가 도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한다.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를 종속변수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와 가족 간 일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생과 이들의 부모가 응답한 자료를 분석한 Y. Lee(2011)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해외의 경우에도 초기 성인기 자녀 지원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의 태도를 알아본 연구(F. Goldscheider, A. Thornton, & L. Yang, 2001)와 세대 간 주거 지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연구(F. Goldscheider & L. Lawton, 1998) 정도가 발견되었다. 이렇듯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양적으로도 많지 않고 연구대상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성인자녀를 둔 부모의 태도를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실제 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지원을 받는 자녀의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은 세대간 자원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 모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어떤 자녀를 지원하는지는 세대간 자원이전 모델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로,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이타적인 부모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이 더 필요한 자녀를 지원한다는 이타심(altruism) 가설(G. Becker & N. Tomes, 1977), 훗날 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녀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는 위험에 대한 보험(insurance against risk) 가설(E. Frankenberg, L. Lillard, & R. Willis, 2002), 즉각적으로 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자녀를 지원한다는 교환(exchange of money for time) 가설(D. Cox, 1987)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대간 자원이전 모델의 영향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받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부모’가 성인자녀를 지원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원을 받는 자녀의

특성만큼이나 지원을 하는 부모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의 성별도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과 관련된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을 살펴본 Y. Lee(2011)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는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며, 어머니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인자녀에게 지원이 소홀할 수 있다고 한다. F. Goldscheider and L. Lawton(1998)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성인자녀에 대한 주거 지원에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도구적 지원의 실제 제공과 관련된 특성에서도 성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조모, 즉 어머니의 경우 조부인 아버지보다 손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M. Kim, K. Seong, K. Paeng, H. Choi, & S. Choi, 2011).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관련 특성을 알아보고자 할 때 부모의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전국 규모의 자료를 사용하여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와 관련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은 무엇인지,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실제로 제공하는 수준과 관련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도구적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합한 지원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부모의 특성은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태도적,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구적 지원에 대한 태도와 실제 지원과 관련된 부모의 특성을 알아보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가 형성되는 배경은 무엇이며 자녀를 지원하게 되는 맥락은 무엇인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 및 지연되는 청년기 독립 등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와 관련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자녀 및 부모부양 태도에 관한 특성, 가족관계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과 관련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자녀 및 부모부양 태

도에 관한 특성, 가족관계 특성,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특성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 및 지원 제공의 현황 및 연구동향

1)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 및 지원 제공의 현황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가 성인자녀를 도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가 한국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S. Kim, 2014), 자녀양육의 책임 한계에 대해 '대학졸업 때까지'에 이어 '혼인할 때까지'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고, '취업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언제(까지)라도'라는 응답도 기혼남성의 5.1%, 기혼여성의 4.5%를 차지하였다. 2008년 사회조사에서는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해 '부모가 지원하지 않음', '부모가 일부 지원', '부모가 전적으로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Y. Lee(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 및 이들의 부모 모두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부모가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미취업 성인자녀의 용돈, 결혼준비 비용은 부모가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실제 도구적 지원 제공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04)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21.7%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성인자녀가 지원을 받지 않는 성인자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J. Kim, 2006; S. Koh, 2005). 또한 한국의 부모는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손자녀 돌봄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G. Han & S. Yoon, 1994; Y. Kang, 2011; S. Koh, 2012).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로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과 '손자녀 양육 및 자녀의 가사를 돕기 위해' 등 자녀 측의 요구로 같이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9년 37.4%, 2011년에는 39.1%, 2013년 39.5%로 꾸준히 증가하였다(H. Park, 2013). 이러한 결과 역시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성인자녀 동거

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부상하였음을 보여준다.

2)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 및 지원 제공의 연구동향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실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현상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부모로부터 성인자녀로의 경제적 자원 이동은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 Bae, 2008; S. Koh, 2012). 예를 들어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 유형을 살펴본 연구(J. Jung & G. Kim, 2012; J. Kim, 2006),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연구(J. Kim & H. Song, 2008; S. Koh, 2002; S. Koh, 2012; B. Son, 1998) 등이 있다. 또한 손자녀 돌봄, 가사노동 등 경제적 지원 이외의 도구적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G. Han & S. Yoon, 1994; Y. Kang, 2011; J. Lee, 2013). 예를 들어, 손자녀 돌봄, 가사노동 등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의 특성이나 지원을 받는 성인자녀의 특성에 관한 연구(Y. Choi, 2012; I. Jeong, 2008; E. Kim, 2011; J. Lee & J. Bauer, 2013; K. Park, 2007), 부모의 도구적 지원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G. Han & S. Yoon, 1994; H. Lee, 2012)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의 혜택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G. Han & S. Yoon, 1994; S. Koh, 2012).

성인자녀를 도구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관한 부모의 태도와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실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에 대하여 2008년 사회조사 자료 중 고등학생과 이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응답을 분석한 Y. Lee(2011)의 연구가 국내 연구로는 거의 유일하다. 해외 연구는 미국에서 대표성 있는 조사인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NSFH) 자료를 활용하여 노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또는 성인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F. Goldscheider and L. Lawton(1998)의 연구와 디트로이트 지역 표본을 활용하여 초기 성인기 자녀 지원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의 태도를 알아본 F. Goldscheider et al.(2001)의 연구 정도가 있다.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과 관련된 연구는 특히 지원을 받는 성인자녀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다. 예를 들어 성인자녀의 연령이 낮은 경우(D. Cox, 1987; J. Jin, 1999; K. McGarry & R. Schoeni, 1995), 성인자녀의 소득이 낮은 경우(S. Koh, 2005; K. McGarry & R. Schoeni, 1995; B. Son, 1998), 성인자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J. Kim & H. Song, 2008), 성인자녀가 아들인 경우(J.

Kim & H. Song, 2008), 양가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J. Kim, 2006)에 지원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이나 서비스 지원 등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과 관련된 '부모'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동향은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구적 지원을 연구함에 있어 실제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에 대한 태도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 및 지원 제공 관련된 부모의 특성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 및 제공과 관련해서 부모의 일반적 특성이나 경제적 특성과 함께, 부모가 자녀나 노부모 부양에 관해 갖고 있는 태도나 가족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 Son(199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욕구와 자녀의 경제적 요인, 경제적 동기 이외의 다양한 기타 요인(애경사 유무, 근로활동 유무, 부모에 대한 자녀의 관심정도)이 성인자녀 지원에서 의미 있는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 지원에 관한 부모의 태도 및 실제 지원 제공과 관련된 요인을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 가족관계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지 않고 분석한 선행연구가 대다수라는 점으로 인해 부모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서술하고자 한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 및 실제 지원을 예측하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건강, 미혼자녀 유무 등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연령의 경우, 지원에 대한 태도에서는 부모의 연령과 부모의 태도 간에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F. Goldscheider & L. Lawton, 1998; Y. Lee, 2010)와 부모의 연령대와 고등학생 자녀의 태도와만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Y. Lee, 2011)가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의 경우 고등학생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실제 지원에서는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원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D. Cox, 1987; K. McGarry & R. Schoeni, 1995)가 있다.

둘째, 부모의 교육수준은,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F. Goldscheider et al., 2001),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Y. Lee, 2010), 유의미한 관련

이 없다는 연구(F. Goldscheider & L. Lawton, 1998)가 있다. 실제 지원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자녀들에게 금전 이전을 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많다(D. Cox, 1987; J. Jin, 1999; K. McGarry, 1999; K. McGarry & R. Schoeni, 1995; M. Park, 2007).

셋째, 성인자녀에 대한 실제 도구적 지원 제공은 부모의 건강상태와도 유의미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건강과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건강이 좋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한다고 한다(J. Jin, 1999; J. Jung & G. Kim, 2012; B. Son, 1998).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관련 태도와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미혼자녀 유무의 경우,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을 직접 분석한 연구는 없으나 미국의 어머니는 19세 이하의 자녀와 동거할 경우 성인자녀에게 주거 지원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더욱 지지하였다는 연구결과(F. Goldscheider & L. Lawton, 1998)를 토대로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이 일하는 시간보다 가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는 연구(E. Lee, 2011)가 있다.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부모들은 미혼자녀로 인하여 가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가사노동 등의 도구적 지원이 많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독신인 자녀가 결혼한 자녀보다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을 확률이 더 크다는 연구(K. McGarry & R. Schoeni, 1995)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역시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가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 경제적 특성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 및 실제 지원을 예측하는 부모의 경제적 특성으로는 소득, 경제생활 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 노후준비 여부 등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소득의 경우, 지원 관련 태도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은 어머니가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연구(F. Goldscheider et al., 2001)와 소득이 높은 응답자가 성인자녀에 대한 주거 지원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연구(F. Goldscheider & L. Lawton, 1998)가 있다. 실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높은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 Koh, 2002; K. McGarry, 1999; K. McGarry & R. Schoeni, 1995; L. Pezzin & B. Schone,

1999; B. Son, 1998).

둘째, 본 연구에서 경제생활 만족도란 가족의 경제적 상태 및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소득이나 자산의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 또한 성인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경제생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태도나 실제 지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제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는 경제적 자원을 공유할 의향이 높아서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서비스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실제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제생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성인자녀 지원 관련 태도 및 실제 지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경험적인 데이터를 사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주관적 계층의식이란 사회의 위계 속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평가하고 특정 계층에 주관적인 일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M. Jackman & R. Jackman, 1973; D. Yang, 2014). 경제적인 차원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의 정도인 경제생활 만족도와는 달리, 주관적 계층의식은 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하며 타인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관적 계층의식과 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주관적으로 자신의 계층을 높게 평가하는 부모가 자신의 계층을 자녀 세대에 전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 중상층에 속하는 부모가 하층에 비해 기혼자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연구(S. Son, 1992)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E. Grundy & J. Henretta, 2006)가 있다.

넷째, 부모의 노후준비 여부도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50-60대 부모들은 결혼한 자녀에게까지 확장된 부모역할을 수행하느라 자신의 노후 삶에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S. Koh, 2012). 노후 삶에 필요한 자원을 노후준비로 보았을 때 부모의 노후준비는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S. Shin(2010)의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을 하지 않을 때 노후준비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의 교육비가 포함되며, 자녀의 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노후준비의 가능성이 낮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자녀양육과 노후준비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부모의 노후준비가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M. Kobayashi(2012)의 연구에서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자녀에게 제공

하는 경제적 지원 간에 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노후준비 여부와 도구적 지원 제공의 관련성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표성 있는 전국 자료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와 같은 부모의 태도 특성이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녀관,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양 책임 소재에 대한 태도 등이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 Hong and I. Kwak(2014)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할수록 중년 부모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타났으나, 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과는 관련이 없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역시 도구적 지원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부모 부양에 순응적인 태도를 가진 중년기 성인들이 자신 역시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기대심리를 가진다고 한다(H. Jeon & M. Kim, 2012). 또한 S. Lee and D. Kim(2002)은 전통적 가치를 수용한 중년층일수록 세대관계에서 지원을 할 가능성이 강하다고 하였다. 즉,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부모세대는 그만큼 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가지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와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와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4) 가족관계 특성

부모의 가족관계 특성인 부부관계 만족도, 부모-자녀관계의 질, 어려울 때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향이나 노후에 누구와 함께 지내고 싶은지 등도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가족관계는 가족체계 중 부부체계로부터 시작되므로 부부관계 만족이나 부부관계의 질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 하는 다양한 도구적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부관계 만족도가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관련 태도 및 실제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추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관련 태도 및 실제 지원을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 지원에 관한 태도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 불만족한 부모는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 지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국내 연구결과(Y. Lee, 2011)가 있다. 해외에서도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높게 평가한 어머니가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지원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

다(F. Goldscheider et al., 2001). 실제 지원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세대 간의 친밀감과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손자녀 양육지원 여부 또는 지원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 Guzman, 1999; A. Hunter, 1997, J. Lee & J. Bauer, 2013), H. Lee(2012)의 연구에서도 성인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가 도구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울 때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향이나 향후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기대도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S. Hong and I. Kwak(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성인자녀가 개인문제나 집안일을 서로 상담하는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모와 성인자녀가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을 경우, 즉 현재 부모가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자녀일 경우, 부모는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호혜성 원리에 입각해서 보면, 부모가 노후에 자녀와 함께 지낼 것으로 기대할 경우, 성인자녀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실제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동거할 경우 부모로부터 손자녀 돌봄이나 집안 청소 등의 도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M. Kim & S. Son, 2005)가 있다. 그러나 노후 자녀와의 동거여부와 경제적 지원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M. Kobayashi, 2012). 이상을 토대로 볼 때, 어려울 때 자녀에게 의지할 수 있는지와 노후에 성인자녀와 동거하기를 기대하는지가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 및 실제 지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구적 지원과 관련된 부모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여성가족부가 2010년에 실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2차 가족실태조사는 전국 2,500개 일반 가구의 가구대표자(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 및 해당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총 4,75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들은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가구와 2005년 12월 이후 2010년 6월까지 신축된 아파트 가구로 구성되었으며, 2단계 층화집락계통추출법(2-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노트북을 이용한 CAPI(computer-aided personal interview)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전문리서치 회사를 통해 훈련된 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2010년 8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주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제2차 가족실태조사의 가구원용 조사 응답자 중 만 2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기혼 남녀 총 1,056명(남성 524명, 여성 5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만 2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 것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도구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었으며, 가족실태조사의 설계 역시 만 2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응답자만 부모-성인자녀 관계 관련 문항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연구대상을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녀로 한정된 것은 부부관계 만족도와 성인자녀 지원의 관련성을 고려하기 위함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구적 지원으로 지원에 대한 태도와 실제 지원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와 관련된 것으로 예측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 가족관계 특성이었다. 각각의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성인자녀 도구적 지원에 대한 태도와 도구적 지원 제공 2개 변수였다. 성인자녀 도구적 지원에 대한 태도는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필요하다면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의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남성 .69, 여성 .68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3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은 경제적 지원(생활비, 용돈 등), 가사 등 집안일,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보기, 병간호 등) 등을 성인자녀에게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묻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에 대해 제공을 하면 1점, 제공을 하지 않으면 0점으로 코딩한 후 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실제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이 많음을 의미한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성, 미혼자녀 유무의 4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연령은 만 연령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졸 미만' 1에서부터 '대학원 졸업 이상'을 6으로 코딩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성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본인이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미혼자녀 유무의 경우 '미혼자녀 있음' 1, '미혼자녀 없음'을 0으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3) 경제적 특성

경제적 특성은 월 평균 가구소득, 경제생활 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 노후준비 여부의 4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50만원 급간으로 측정하였으며 '49만원 이하' 1에서부터 '800만원 이상' 17로 코딩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경제생활 만족도는 가족의 경제생활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하층' 1점에서부터 '상류층' 5점까지로 응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계층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노후준비 여부는 '노후를 위해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를 1점, '아니다'를 0점으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4)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은 자녀관,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양 책임소재에 대한 태도 등 4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자녀관은 총 3문항으로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로 질문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필요하고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자녀관 3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남성 .71, 여성은 .72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3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는 총 3문항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의 질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을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

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남성 .76, 여성은 .78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3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는 총 2문항으로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의 질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한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남성 .69, 여성 .75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2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노부모 부양 책임소재에 대한 태도는 노부모 부양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장남', '아들 모두', '딸', '아들 딸 모두', '능력 있는 자녀' 등 '자녀'라고 응답한 경우는 1, '부모 자신', '국가나 사회', '기타' 등은 '자녀 외' 0으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5) 가족관계 특성

가족관계 특성은 부부관계 만족도,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질,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사람, 노후에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의 4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부부관계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 5점까지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질은 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으로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 사용된 4문항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1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나는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등의 질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남성 .66, 여성 .7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3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닳쳤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을 묻는 문항에서 여러 가지 응답 보기 중 '자녀'라고 응답하였으면 1, '부모', '배우자', '애인', '형제자매', '친구', '성직자', '자기 자신' 등 자녀 이외의 사람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자녀 외' 0으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노후에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은 노후에 누구와 함께 지내고 싶은지를 묻는 문항에서 '만 아들과 함께', '아들 가운데 한명과', '딸들 가운데 한명과', '자녀 중 형편이 되는 자식과 함께'라고 응답하였으면 '자녀' 1로, '나 혼자', '배우자와 단둘이', '친구/ 애인과 함께', '유료 노인복지시설 이용', '무료 노인복지시설 이용',

'기타' 등을 선택하였으면 '자녀 외' 0으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전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치를 구하였고,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1인 성인자녀 도구적 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 가족관계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인 성인자녀에 대한 실제 도구적 지원과 관련된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문제 1에 투입한 독립변수와 함께 성인자녀 도구적 지원에 대한 태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투입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상관계수 및 분산팽창지수(VIF)를 검토하여 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Appendix>에 제시하였으며, 분산팽창지수는 모두 3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분석에는 제2차 가족실태조사의 2차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성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성별 분석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 및 실제 지원과 관련된 변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토대로 한 것임과 동시에, 가구단위 조사인 제2차 가족실태조사의 특성 상 부부가 모두 응답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찰의 독립성을 위하여 남성과 여성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상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제2차 가족실태조사 사용자 안내서에 따라 2차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전반적 경향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태도 특성, 가족관계 특성의 전반적 경향을 성별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남성이 평균 63.34세(범위: 48-89세), 여성이 평균 60.04세(범위: 47-86세)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39.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Table 1. Participants' Descriptive Characteristics

	Male (N = 524)		Female (N = 532)	
	M	SD	M	SD
Age	63.34	8.00	60.04	8.39
Subjective health (1-5)	3.38	.91	3.27	.87
Satisfaction with household economic situation (1-5)	3.09	.89	3.09	.87
Subjective socio-economic class (1-5)	2.39	.80	2.45	.77
Attitudes toward children (1-5)	3.95	.62	3.91	.61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1-5)	3.46	.74	3.56	.73
Attitudes toward caregiving for elderly parents (1-5)	3.33	.81	3.36	.71
Satisfaction with couple relationships (1-5)	3.54	.73	3.37	.76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1-5)	3.25	.62	3.41	.59
	<i>n</i>	%	<i>n</i>	%
Education				
Below elementary school graduate	22	4.3	39	7.4
Elementary school graduate	101	19.6	132	25.0
Middle school graduate	88	17.1	113	21.5
High school graduate	201	39.1	195	36.9
College graduate	88	17.2	48	9.0
Graduate school	13	2.6	1	0.1
Monthly household income (unit: KRW 10,000)				
KRW 99 or lower	59	11.9	74	14.3
KRW 100-199	152	30.6	122	23.7
KRW 200-299	80	16.0	94	18.3
KRW 300-399	107	21.4	94	18.4
KRW 400-499	48	9.5	51	9.9
KRW 500-599	41	8.2	41	7.9
KRW 600 or higher	12	2.3	39	7.6
Have unmarried child				
Yes	268	51.3	298	56.1
No	255	48.7	233	43.9
Financially preparing for later life				
Yes	248	47.4	268	50.3
No	276	52.6	264	49.7
Responsibility for caring for elderly parents				
Child	377	71.9	363	68.3
Others	147	28.1	168	31.7
Someone to rely on in times of difficulties				
Child	43	8.3	68	12.7
Others	480	91.7	464	87.3
Someone to live with in later life				
Child	63	12.0	59	11.1
Others	461	88.0	473	88.9

Table 2. Attitudes toward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and Actual Provision of Instrumental Support: Descriptive Statistics

	Male (N = 524)		Female (N = 532)		t
	M	SD	M	SD	
Attitudes toward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1-5)					
Parents are responsibility for children's college tuition.	3.44	.79	3.49	.75	1.09
Parents are responsibility for children's wedding expenses.	3.19	.72	3.19	.75	.00
Parents are responsible for supporting married children.	3.09	.86	3.10	.73	.19
Average of 3 items	3.24	.62	3.26	.58	-.54
Actual provision of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Yes (%)	No (%)	Yes (%)	No (%)	
Economic support	22	78	25	75	
Housework support	23	77	30	70	
Care support (e.g., care for child, sick family)	14	86	16	84	

초등학교(19.6%) 졸업이었다. 여성의 경우도 고등학교 졸업(36.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졸업(25.0%)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범위: 1-5점)는 남성 평균 3.38점($SD = .91$), 여성 평균 3.27점($SD = .87$)으로 남성이 더 건강하다고 지각하였다. 미혼자녀 유무의 경우 미혼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성 268명(51.3%), 여성 298명(56.1%)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남성의 30.6%가 100-199만원 미만, 여성 23.7%가 100-199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범위: 1-5점)는 남성 평균 3.09점($SD = .89$), 여성 평균 3.09점($SD = .87$)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주관적 계층의식(범위: 1-5점)은 자신이 지각하는 계층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으로 남성 평균 2.39점($SD = .80$), 여성 평균 2.45점($SD = .77$)으로 중하층에 가깝게 지각하였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남성의 47.4%가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50.3%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자녀관(범위: 1-5점)의 경우 남성 평균 3.95점($SD = .62$), 여성 3.91점($SD = .61$)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범위: 1-5점)를 살펴보면 남성 평균 3.46점($SD = .74$), 여성 평균 3.56점($SD = .73$)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자녀양육을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려운 일로 지각하였음을 의미한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범위: 1-5점)는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해

야 하는지 묻는 질문으로 남성 평균 3.33점($SD = .81$), 여성 평균 3.36점($SD = .71$)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노부모 부양의 책임소재에 대한 태도는 남성의 71.9%, 여성의 68.3%가 노부모 부양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관계 특성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부부관계 만족도(범위: 1-5점)의 경우 남성이 평균 3.54점($SD = .73$), 여성이 평균 3.37점($SD = .76$)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질(범위: 1-5점)은 남성의 평균 3.25점($SD = .62$), 여성의 평균 3.41점($SD = .59$)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8.3%, 여성이 12.7%였다. 노후에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12.0%, 여성 11.1%이었다.

2)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 및 실제 지원의 전반적 경향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보고한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 및 실제 지원의 전반적 경향은 <Table 2>와 같다.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 등록금의 경우 남성 평균이 3.44점($SD = .79$), 여성 평균이 3.49점($SD = .75$)으로 가능한 점수범위(1-5점)를 고려할 때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준비 비용은 남성 평균 3.19($SD = .72$), 여성 평균 3.19($SD = .75$)였으며, 결혼 후 돌보아 줄 책임의 경우 남성 평균 3.09($SD = .86$),

여성 평균 3.10($SD = .73$)으로 결혼준비 비용과 결혼 후 돌보아 줄 책임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중간 수준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를 측정된 이상의 3개 문항의 평균은 남성이 3.24점($SD = .62$), 여성이 3.26점($SD = .58$)이었다. 가능한 점수범위(1-5점)를 고려할 때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 = -.54, ns$).

성인자녀에 대한 실제 도구적 지원 제공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은 남성의 22%, 여성의 25%가 제공하였다. 가사 등 집안일의 경우 남성의 23%, 여성의 30%가 성인자녀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돌보기, 병간호 등의 가족원 돌봄은 남성의

14%, 여성의 16%가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집안일 지원, 가족원 돌봄 지원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 관련 변수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와 관련된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자녀 및 부모 부양 태도 특성, 가족 관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남성의 회귀모델에 투입한 변수는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 분산의 17%를 설명하였고, 여성의 회귀모델에 투입한 변수는 분산의 19%를 설명하였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Coefficients for Attitudes toward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Male (N = 524)			Female (N = 532)		
	B	SE B	β	B	SE B	β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00	.00	-.09	.00	.00	.06
Education	.03	.02	.06	.03	.03	.06
Subjective health	.03	.04	.04	-.02	.03	-.03
Have unmarried child (yes = 1)	.18	.06	.14**	.03	.06	.02
Economic factors						
Monthly household income	-.03	.01	-.19***	.00	.01	.03
Satisfaction with household economic situation	.10	.04	.15**	.01	.04	.02
Subjective socio-economic class	-.15	.15	-.15*	-.07	.04	-.09
Financially preparing for later life (yes = 1)	-.02	.06	-.02	.09	.06	.08
Attitudinal factors						
Attitudes toward children	.06	.05	.06	.04	.04	.04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05	.04	.06	.01	.03	.01
Attitudes toward caregiving for elderly parents	.19	.03	.25***	.24	.05	.29***
Responsibility for caring for elderly parents (child = 1)	-.00	.06	-.00	-.07	.05	-.06
Family relationship factors						
Satisfaction with couple relationships	.08	.04	.10*	.09	.03	.12**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02	.05	.02	.08	.04	.08
Someone to rely on in times of difficulties (child = 1)	.11	.10	.05	.26	.08	.15***
Someone to live with in later life (child = 1)	.05	.08	.03	.11	.08	.06
Constant		2.10			1.41	
R^2		.17			.19	

* $p < .05$, ** $p < .01$, *** $p < .001$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미혼자녀 유무가 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beta = .14, p < .01$). 즉 미혼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 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월평균 가구소득($\beta = -.19, p < .001$), 경제생활 만족도($\beta = .15, p < .01$), 주관적 계층의식($\beta = -.15, p < .05$)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성인자녀를 둔 아버지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생활에 더 만족할수록, 주관적으로 평가한 계층이 낮을수록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

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다. 여성의 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남성 $\beta = .25, p < .001$; 여성 $\beta = .29, p < .001$)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성인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에게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부부관계 만족도(남성 $\beta = .10, p < .05$; 여성 $\beta = .12, p < .01$)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성인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만족할수록 성인

Table 4. Multiple Regression Coefficients for Actual Provision of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Male (N = 524)			Female (N = 532)		
	B	SE B	β	B	SE B	β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00	.00	.07	-.00	.00	-.05
Education	.01	.04	.02	-.03	.04	-.04
Subjective health	.17	.05	.17 ***	.10	.04	.09 *
Have unmarried child (yes = 1)	.47	.08	.23 ***	.29	.09	.15 **
Economic factors						
Monthly household income	-.00	.01	-.02	.03	.01	.13 *
Satisfaction with household economic situation	-.22	.05	-.22 ***	-.09	.05	-.08
Subjective socio-economic class	.10	.06	.09	.12	.06	.10
Financially preparing for later life (yes = 1)	.15	.09	.08	.26	.08	.14 **
Attitudinal factors						
Attitudes toward children	-.10	.07	-.07	-.05	.06	-.03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17	.05	.14 ***	.03	.05	.03
Attitudes toward caregiving for elderly parents	.09	.05	.08	-.01	.06	-.00
Responsibility for caring for elderly parents (child = 1)	.05	.08	.02	-.09	.08	-.05
Family relationship factors						
Satisfaction with couple relationships	-.02	.05	-.01	-.10	.05	-.09 *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16	.06	.10 *	.02	.06	.01
Someone to rely on in times of difficulties (child = 1)	-.07	.14	-.02	.09	.12	.03
Someone to live with in later life (child = 1)	.14	.12	.05	.20	.12	.06
Attitude of support for adult children	-.04	.06	-.02	-.03	.07	-.02
Constant		-1.28			.93	
R^2		.14			.18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우에는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자녀($\beta = .15, p < .001$)인 경우에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3.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 관련 변수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 가족관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남성의 회귀모델에 투입된 변수는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 분산의 14%를 설명하였고, 여성의 회귀모델에 투입된 변수는 분산의 18%를 설명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주관적 건강성($\beta = .17, p < .001$), 미혼자녀 유무($\beta = .23, p < .001$)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관적 건강성($\beta = .09, p < .05$), 미혼자녀 유무($\beta = .15, p < .01$)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성인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경우,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경제생활 만족도($\beta = -.22, p < .001$)가, 여성의 경우 월 평균 가구소득($\beta = .13, p < .05$)과 노후준비 여부($\beta = .14, p < .01$)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성인자녀를 둔 아버지는 경제생활에 덜 만족하는 경우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자녀를 둔 어머니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beta = .14, p < .001$)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자녀양육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지각할수록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특성 중 성인자녀의 도구적 지원 제공과 유의하게 관련된 변수는 없었다.

가족관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질($\beta = .10, p < .05$)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자녀를 둔 아버지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함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특성 중 부부관계 만족도($\beta = -.09, p < .05$)가 유의하게 관련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경우 부부관계에 덜 만족 할수록 성인자녀

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함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1의 종속변수인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관한 태도를 연구문제 2의 회귀모델에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관한 태도는 남녀 모두 실제 지원 제공과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구적 지원 중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와 실제 지원 제공과 관련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태도 특성, 가족관계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차 가족실태조사의 가구원용 조사 응답자 중 만 2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기혼 남녀 총 1,056명(남성 524명, 여성 53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와 유의미하게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경제생활에 만족할 경우, 주관적으로 평가한 계층이 낮은 경우, 노부모 부양이 자녀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경우, 부부관계에 만족할 경우에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 노부모 부양이 자녀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경우, 부부관계에 만족할 경우,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자녀일 경우에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갖는다.

남성과 여성의 성인자녀 지원에 관한 태도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와 부부관계 만족도이다. 남녀 모두 노부모 부양이 자녀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경우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더욱 지지한다.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부모 세대는 그만큼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추측할 수 있다.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의 노후를 자녀가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이나 기대를 할 경우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부부관계에 만족할수록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부부관계의 만족이나 질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전이시키는 다양한 도구적 지원이 다르게 변화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미혼자녀가 있으면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더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 대학 교육비 등 교육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의무를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높은 수준으로 지각한다는 Y. Lee(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아버지의 경우 미혼자녀가 있으면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모두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족을 형성했다면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덜 갖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미혼자녀 유무가 유의미하지 않아서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과 관련된 태도에서 자녀의 결혼유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성은 대부분의 경제적 특성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경제적 특성 중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가 없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의 경우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와 경제적 특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거나, 주관적으로 평가한 계층이 낮으면,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주된 부양자 역할을 담당했던 아버지는 자신의 낮은 소득수준이나 낮은 계층이 자녀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즉,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자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사노동이나 손자녀 돌봄과 같은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가구소득이나 주관적 계층과는 반대로, 남성은 경제생활에 만족할 경우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아버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이 직장과 사회에서 경험한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자녀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구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남성의 경우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 경제생활 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관련성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성인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에 있어 경제적 특성이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경제적 특성과 아버지의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의 관련성에 대해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자녀일 경우에 도구적 지원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에서 아버지의 경우 경제적 특성이 중요했다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던 연구(Y. Lee, 2011)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교환론적 관점에서 보면, 성인자녀로부터

의 정서적 지원을 의미 있게 여기는 어머니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성인자녀에 대한 실제 도구적 지원 제공과 유의미하게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할 경우,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경제생활에 덜 만족할 경우, 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생각할 경우,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질이 좋을 경우 성인자녀에게 실제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한다. 여성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할 경우,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 경우, 노후준비를 하고 있을 경우, 부부관계에 덜 만족할 경우 성인자녀에게 실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한다.

성인자녀에 대한 실제 도구적 지원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는 주관적 건강과 미혼자녀 유무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건강이 좋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J. Jin, 1999; J. Jung & G. Kim, 2012; B. Son, 199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버지의 경우 건강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건강할 경우 오랜 시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자녀에게 실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모가 건강할 경우 가사노동이나 손자녀 돌봄과 같은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는 생활비나 교육비, 가사노동 등의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모와 동거할 경우 가사노동을 지원받을 확률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생활에 덜 만족할수록, 자녀양육이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태도를 가질수록,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부모의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은 자녀에 대한 지원 제공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E. Grundy & J. Hentretta, 2006)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아버지의 경우 경제생활에 덜 만족할수록 자신이 경험하는 경제생활에 대한 인식을 자녀에게 전수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한다는 J. Lee and J. Bauer(2013)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또한 남성은 자녀양육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경우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남성이 부모는 성인자녀를 도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 수준도 높은 것인지, 현재 성인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상황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인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자녀관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와 실제 지원 간의 인과관계는 추후 종단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남성은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질이 좋을 경우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한다. 이는 세대 간 친밀감과 관계 만족도가 실제 도구적 지원제공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L. Guzman, 1999; A. Hunter, 1997; J. Lee & J. Bauer, 2013)와 일치하며, 애정적 결속과 세대간 지원의 관계를 가정한 세대간 결속 모델(V. Bengtson & R. Roberts, 199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아버지의 경우 성인자녀와의 만족스러운 관계가 도구적 지원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로서, 성인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나 친밀감을 도구적 지원을 통해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 경우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가사노동, 손자녀 양육 등의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한다. 이는 소득이 높은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K. McGarry & R. Schoeni, 1995; B. Son, 1998)와 일치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한다.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게 실제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인자녀에 대한 실제 도구적 지원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있지만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할 경우 지원에 관한 태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도구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모 본인이 성인자녀 지원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건강한 부모는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건강한 조모는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지 않을 평계가 없다는 한 질적 연구의 결과(J. Lee & J. Bauer, 2013)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남성의 경우 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생각할 경우,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질이 좋은 경우에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와는 관계없이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 경우, 노후준비를 하고 있을 경우에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어머니는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집안일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에서는 아버지 집단에서만 미혼자녀 유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실제 지원에서는 어머니 집단에서도 미혼자녀가 지원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는 가구소득이 높거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을 경우, 도구적 지원에 관한 본인의 태도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도구적 지원을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성인자녀에 도구적 지원을 한다는 연구결과(Y. Lee, 2010; K. MaGarry & R. Schoena, 1995)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관한 태도와 실제 지원 제공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은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성인자녀를 도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성인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가사노동,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관한 태도 및 가치관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심리적 복지나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인자녀가 너무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지각하는 상태에서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부모의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는 연구결과(K. Fingerma, Y. Cheng, E. Wesselmann, S. Zarit, F. Furstenberg, & K. Birditt, 2012)는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관한 태도와 실제 지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연구의 주제로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관한 태도와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부모의 심리적 복지나 부모-자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연구를 제안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구적 지원과 관련된 부모의 다양한 특성을 밝혔으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제2차 가족실태조사라는 횡단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대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association)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종단 자료 분석을 통하여 부모의 특성과 성인자녀 지원 제공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도구적 지원의 측정과 관련된 제한점이 있다.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는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성인자녀의 대학교육비, 자녀결혼준비 비용, 결혼한 자녀를 위한 지원(손자녀 돌봄 및 경제적 지원)을 지원의 내용으로 사용하였고, 실제 지원 제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가사 등 집안일, 손자녀 등 가족원 돌봄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문항들은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서 중요한 측면이지만 이들 문항이 다양한 형태의 도구적 지원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를 측정한 문항과 실제 지원을 측정한 문항에서 사용한 도구적 지원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태도와 실제 지원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응답방식 역시 태도는 5점 리커트 방식으로 측정된 반면, 실제 지원은 지원의 여부로 측정하여 차이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구적 지원을 포괄하는 측정도구를 사용하거나, 도구적 지원의 하위범주별로 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태도와 실제 지원을 측정할 때 동일한 유형의 지원에 대해 동일한 응답방식을 사용하여 태도와 실제 지원을 대칭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한 전국 규모의 자료를 사용하여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관련 태도 및 실제 도구적 지원과 관련된 특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집안일, 가족원 돌봄 등을 포함하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으며, 성인자녀 지원을 예측하는 부모의 특성으로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가족관계 특성 등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특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특히 도구적 지원에 관한 태도와 실제 도구적 지원과 관련된 요인 중 서로 다른 특성이 의미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앞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때 다양한 부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REFERENCES

- Bae, H. (2008). Amount of economic resources transfer to adult children among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4(4), 81-106.
- Becker, G. S., & Tomes, N. (1977). Child endowments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142-163.
- Bengtson, V. L., & Roberts, R. E. (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856-870.
- Buchmann, M. C., & Kriesi, I. (2011).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 481-503.
- Choi, Y. H. (2012). *A study on the depression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 Focusing on the actual conditions of raising their grandchildren an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K. (2005). *National survey results on the elderly life conditions and welfare need 2004*.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Cox, D. (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508-546.
- Fingerman, K. L., Cheng, Y.-P., Wesselmann, E. D., Zarit, S., Furstenberg, F., & Birditt, K. S. (2012). Helicopter parents and landing pad kids: Intense parental support of grow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4), 880-896.
- Frankenberg, E., Lillard, L., & Willis, R. J. (2002).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627-641.
- Goldscheider, F. K., & Lawton, L. (1998). Family experiences and the erosion of support for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 623-632.
- Goldscheider, F. K., Thornton, A., & Yang, L.-S. (2001). Helping out the kids: Expectations about parental suppor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3), 727-742.
- Grundy, E., & Henretta, J. C. (2006). Between elderly parents and adult children: A new look at the intergenerational care provided by the 'sandwich generation.' *Ageing & Society*, 26, 707-722.
- Guzman, L. (1999). *The use of grandparents as child care providers* (NSFH Working Paper No. 84). Retrieved from <http://www.ssc.wisc.edu/cde/nsfhwp/nsfh84.pdf>
- Han, G.-H., & Yoon, S.-D. (1994). Urban married women's perceived benefits and costs of the coresidence with paren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4(2), 105-120.
- Hong, S.-H., & Kwak, I.-S. (2014). Effects of intergene-

- rational support exchange with their adult children on the happiness of the middle-aged parents.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8(1), 69-91.
- Hunter, A. G. (1997). Counting on grandmothers: Black mothers' and fathers' reliance on grandmothers for parenting support. *Journal of Family Issues*, 18, 251-269.
- Jackman, M. R., & Jackman, R. W. (1973). An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American Sociology Review*, 38(5), 569-582.
- Jeon, H., & Kim, M. (2012). The relationships of the caregiving awareness, caregiving appraisal for middle-aged and senescent life plan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2(2), 206-231.
- Jeong, I. Y. (2008). *Impact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to the loneliness of elderly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 Jin, J.-M.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curity transfers and private transfers in Korea focusing on the recipients of the Korea teacher's pension and livelihood protection benefi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13(1), 167-199.
- Jung, J. K., & Kim, G. E. (2012). The study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between older parents and adult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2(3), 895-912.
- Kang, Y. (2011). The psychosoci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The role of resources, type of care and perception of caregiving.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4(1), 79-97.
- Kim, E. J. (2011). *A study on caregiving stress of grandmothers raising infant grandchildren: At double income households and working mother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 (2012.11.26). *Sad 50s*. Retrieved fr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5/2012112501202.html
- Kim, J. K., & Song, H. J. (2008). Intergenerational private income transfer between marri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4(3), 77-98.
- Kim, J.-Y. (2006). *Analysis on financial interchange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C., & Son, S. (2005). Caregiving behaviors and emotional solidarity between parents and adult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7), 37-51.
- Kim, M.-H., Seong, K.-O., Paeng, K.-H., Choi, H.-J., & Choi, S.-Y. (2011). Factors affecting the conflict betwee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nd adult children: Focusing on grandparents'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1(4), 905-923.
- Kim, S. (2014). *Koreans' family values and directions for social policies*. Health · Welfare Issue & Focus, 246 (No. 2014-2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obayashi, M. (2012). *Research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for Korean unmarried adult child from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oh, S.-K. (2002). Financial transfers from elderly parents to their adult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6(2), 53-64.
- Koh, S.-K. (2005). Resource transfers from adult children to their elderly par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1), 187-195.
- Koh, S.-K. (2012). Parental support for cost of marriage formation and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3), 1-19.
- Lee, E. T. (2011). *An empirical study on the time use of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2012). *Family differentiation between married people and grandparents' caregiv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2013). Providing and utilizing child care by grandmothers in South Korea: Grandmothers' and employed mothers' relationship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1(2), 1-24.

- Lee, J., & Bauer, J. W. (2013). Motivations for providing and utilizing child care by grandmothers for employed moth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 381-402.
- Lee, S. L., & Kim, D.-S. (2002). Effects of the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lationship on the attitudes of the middle aged on old-age securi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5*(1), 83-111.
- Lee, Y. J. (2010). *A study on resources transfers between mothers and adult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S. (2011). Attitudes about parental economic support to young adult children: Comparisons among children, mother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4*(3), 1-30.
- McGarry, K. (1999). Intergenerational transfer and intended beques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3*, 321-351.
- McGarry, K., & Schoeni, R. F. (1995). Transfer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4), S184-S226.
- Park, K. A. (2007). *A study on feelings of reward of the grandparent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 Park, H.-H. (2013). *Report on the Social Survey 2013*. Daejeon: Statistics Korea.
- Park, M.-R. (2007). *Influential factor on financial resources benefits and the benefit amount of retired the aged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Pezzin, L. E., & Schone, B. S. (1999). Parental marital disruption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 an analysis of lone elderly parents their children. *Demography, 34*, 297-297.
- Shin, S.-H. (2010). *The decision factor on thinking against their old age of the middle gene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o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 Son, B.-D. (1998). A study on the comparative effects of the economic classes for the size of interfamily income transfer in Korea.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14*(1), 157-187.
- Son, S. Y. (1992). Older couples'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hips. In Korea Women's Social Research Council. (Ed.), *Couple relationships in Korean families*. Seoul: Social and Cultural Research Institute.
- Yang, D.-W. (2014). *The effects of subjective social status on health-risk behaviors and self-rated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접수일 : 2014년 07월 15일

심사일 : 2014년 08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9월 24일

Appendix. Inter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Age	1	-.40 ***	-.33 ***	-.45 ***	-.38 ***	-.13 **	-.09 *	.29 ***	.03	-.06	.09 *	.04	-.01	-.07	.28 ***	.04	-.09 *	-.10 *
2. Education	-.54 ***	1	.33 ***	.19 ***	.47 ***	.15 **	.35 ***	.39 ***	.08	-.05	-.15 **	.07	.15 **	-.22 ***	-.14 **	-.01	-.00	.12 **
3. Subjective health	-.27 ***	.28 ***	1	.07	.37 ***	.43 ***	.42 ***	.33 ***	.24 ***	-.02	-.06	.04	.18 ***	.25 ***	-.15 **	-.04	.04	.14 **
4. Have unmarried child (yes = 1)	-.50 ***	.27 ***	.11 *	1	.30 ***	-.07	-.04	-.09	-.00	.08	-.02	.03	-.07	-.04	-.09 *	-.04	.12 **	.23 ***
5. Monthly household income	-.39 ***	.49 ***	.35 ***	.45 ***	1	.32 ***	.45 ***	-.37 ***	.19 ***	-.00	.00	.11 *	.13 **	.15 **	-.09 *	.09	-.07	.10 *
6. Satisfaction with household economic situation	-.14 ***	.16 ***	.31 ***	-.08	.22 ***	1	.58 ***	-.38 ***	.27 ***	.00	.03	-.14 **	.16 ***	.14 **	-.04	-.03	.07	-.10 *
7. Subjective socio-economic class	-.21 ***	.41 ***	.36 ***	.08	.45 ***	.53 ***	1	-.35 ***	.10 *	-.07	.10 *	-.04	.23 ***	.14 **	-.01	-.08	-.10 *	.32
8. Financially preparing for later life (yes = 1)	.23 ***	-.37 ***	-.32 ***	-.17 ***	-.38 ***	-.27 ***	-.35 ***	1	-.09	.11 *	.02	-.00	-.05	-.14 **	.05	.09 *	.01	-.08
9. Attitudes toward children	.06	-.03	-.01	-.07	-.01	.14 ***	-.02	.05	1	.12 **	.22 ***	-.01	.26 ***	.29 ***	-.05	.08	.16 ***	-.01
10.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10 *	.12 **	.08	.19 ***	.22 ***	.06	.08	-.16 ***	-.01	1	.07	-.11 *	-.05	.02	-.12 **	-.01	.10 *	.13 **
11. Attitudes toward caregiving for elderly parents	.05	-.04	.06	.06	.16 ***	.13 **	.04	-.06	.21 ***	.09 *	1	-.10 *	.01	-.04	.04	.12 **	.27 ***	.05
12. Responsibility for caring for elderly parents (child = 1)	.09 *	-.09	.01	-.04	.06	-.10 *	-.01	.09	-.07	-.09 *	.19 ***	1	.06	.01	.10 *	.10 *	.00	.06
13. Satisfaction with couple relationships	-.01	.09 *	.20 ***	-.05	.09 *	.26 ***	.25 ***	-.19 ***	.10 *	-.02	.14 **	-.04	1	.23 ***	-.07	.13 **	.09 *	-.00
14.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08	.16 ***	.18 ***	.00	.11 *	.20 ***	.11 *	-.10 *	.28 ***	-.02	.15 ***	-.14 **	.15 **	1	-.04	.18 *	.05	.11 *
15. Someone to rely on in times of difficulties (child = 1)	.24 ***	-.25 ***	-.12 **	-.09 *	-.09 *	-.14 **	-.10 *	.20 ***	.04	-.05	.09 *	.07	-.18 ***	.00	1	.00	.00	-.06
16. Someone to live with in later life (child = 1)	-.01	-.05	-.04	.05	-.01	-.03	-.09 *	.10 *	.09 *	-.10 *	.11 *	.10 *	.05	.09 *	-.01	1	.06	.04
17. Attitude of support for adult children	.05	.02	.02	.03	.08	.07	-.01	-.09 *	.16 ***	.04	.35 ***	-.01	.16 ***	.18 ***	.14 **	.10 *	1	.01
18. Instrum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24 ***	.19 ***	.20 ***	.30 ***	.31 ***	.03	.18 ***	-.24 ***	-.07	.12 **	.01	-.04	-.05	.04	-.03	.04	-.01	1

* $p < .05$, ** $p < .01$, *** $p < .001$

Note. The upper triangle of the diagonal shows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men (N = 524), and the lower triangle shows correlation coefficient for women (N = 532).